

조시현

보낸 사람: "chung-ok" <yune25@hanmail.net>
 받는 사람: <shcho@cc.sungshin.ac.kr>
 보낸 날짜: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35
 제목: the final judgment

조시현 교수님,

이번 헤이그 법정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피곤이 좀 풀리셨기 바랍니다.

이번 최종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12월 12일까지 제출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헤이그 법정은 두번째여서 판사, 검사, 특히 법률고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측 요구는 최대한 받아주리라 생각 합니다.

우리의 성노예제가 필리핀이나 중국의 점령하의 강간하고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기소장에서 우리가 식민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장에는 식민지라는 낱말이 여러번 나옵니다. 우리기소장에는 점령, 합병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식민지라는 낱말이 없으니가 gender 관점에서만 이문제를 보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부자씨의 제안입니다만은 "소위" 라는 말을 써서 "소위 식민지"하에서 성노예제도밑에서 끌려가 당했다고 하면 식민지 제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점령했다, 강점했다하면 마파니께나 낭정이 점령당한것하고 구별하기 힘들 것 이니까요. 백인들은 합병이무엇인지 모를 터이고.

학기 말이라 정말 시간이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f Rhonda Copelon하고 Judge Gabrielle Kirk MacDonald 에게 우리의견을 말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 정 옥

=====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실시간 채팅, 무한대 파일전송!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 클릭!
 다운받기 <http://messenger.daum.net/>